

## 중소규모 제조업의 위험성평가 활용 및 적용효과

강미진<sup>1,2</sup>, 이영순<sup>3,\*</sup>

<sup>1</sup>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;

<sup>2</sup>서울산업대학교 시스템안전연구센터;

<sup>3</sup>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

(LYSOON@snut.ac.kr\*)

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제조업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및 공정의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용실태와 그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.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는데,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얻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애로사항은 전문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분석되었으며, 위험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의 명확한 파악이었다. 해외 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험성평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경제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.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사고발생 및 재해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방안을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이를 제안하였다. 기술적 지원방안으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한 위험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보급, 이론 교육을 포함하여 전문가와 직접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지원 등이 제안되었다. 이러한 지원방안은 사업장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업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안하였다.